

도별 양돈자조금 대회 전국 9개도서 릴레이 개최

양돈자조금으로 국내 양돈산업 위기 슬기롭게 극복을
8월 11일 제주서 시작... 자조금사업 성과 등 발표

▲ 전국 9개도에서 열리는 2007 양돈자조금 대회가 지난 8월 11일 제주를 시작으로 개최됐다. 각 도별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양돈산업의 미래와 자조금의 역할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사진은 경남 양돈자조금대회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사)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돈협회 각 도협의회가 주관하는 전국 양돈자조금 대회가 전국 9개 도별 릴레이로 개최되고 있다.

■ 제주 양돈자조금 대회

양돈자조금 대회 첫 개막을 한 제주도 양돈자조금 대회는 지난 8월 11일 제주 금능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과 김건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우남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2백여명의 양돈

인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양돈인들은 양돈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 그간 사업성과 등을 청취하면서, 앞으로 양돈자조금이 양돈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국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양돈자조금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등 FTA 시대의 양돈산업 사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성찬 제주도협회회장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않고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국산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양돈농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 양돈인대회에 참석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



① 제주 양돈자조금대회 개막을 알리는 김성찬 제주도협의회장
 ②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③ 김우남 국회의원이 양돈자조금대회를 축하하는 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④ 양돈산업의 미래를 위해 자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김동환 양돈협회장

도지사와 김우남 국회의원도 양돈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탄생하여 진행되고 있는 양돈자조금 사업을 높이 평가하며 제주양돈 발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양돈자조금연구원 박종수 원장의 “FTA 시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열정적인 특강과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의 “양돈자조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 경남 양돈자조금 대회

또한 ‘2007년 경상남도 양돈자조금 대회’가 지난 8월 20일 산청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과 김건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 김민호 산청군의회 의장, 김종호 산청군 부군수, 지역 국회의원, 축협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3백여명의 양돈인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경남양돈인들은 FTA시대하의 시장개방 속에서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한·EU FTA가 체결될 경우 양돈업계에 미칠 타



▲ 경남 양돈자조금대회 개회사를 하는 박창식 경남도협의회장

격은 한·미 FTA를 능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방의 거센 파도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전 양돈인들이 힘을 모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양돈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특강에 나선 김민경 건국대 교수는 ‘FTA시대,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자조금의 역할과 필요성’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자조금 사업으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국산 돼지고기의 소비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돈인들은 이날 2부 행사로 레프팅을 통한 ‘한마음 단합대회’를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 강원 양돈자조금 대회

‘2007년 강원도 양돈자조금 대회’가 지난 8월 24일 강릉 미앤지웨딩홀에서 개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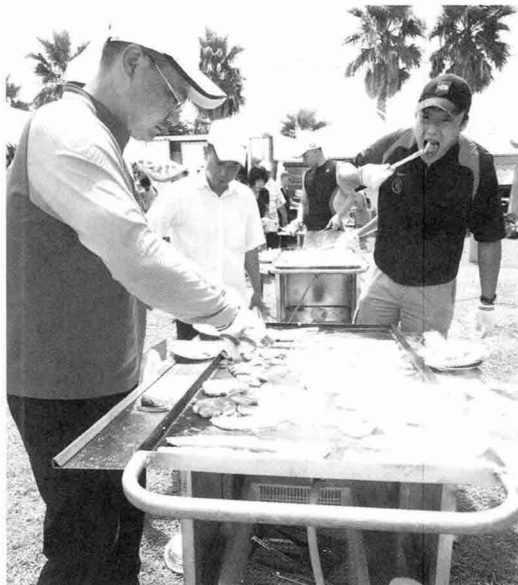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과 김건태 양돈자조금 관리위원장, 성시명 강원도협회의회장 등 각계 인사를 비롯해 강원지역 양돈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시명 강원도협회의회장은 “FTA 등 닥쳐온 양돈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양돈인의 결집된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해 양돈자조금의 필요성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강원 양돈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종수 충남대 교수의 ‘FTA시대, 국내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자조금의 역할’ 특강과 함께 김세우 원장의 ‘건강과 행복만 들기’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적극 동참 당부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 넘어 산인 국내 양돈산업의 위기에 우리가 스스로 조성한 양돈자조금이 우리 양돈산업의 기틀을 보다 강건하게 다질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1기 양돈자조금 사업에 이어 2기 양돈자조금 사업 또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양돈인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보여줄 것”을 양



▲ 제주 양돈자조금 대회에서는 금릉해수욕장에 모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국산 돼지고기 시식회도 함께 개최됐다.

돈인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양돈자조금 대회는 특히 오는 10월 17일 치러질 양돈자조금 대의원선거에 대한 홍보를 통해 양돈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에 따라서는 양돈산업 발전대책과 자조금사업 방향을 놓고 종합토론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회 주관은 양돈협회 산하 각 도협의회가 담당하며 참석대상은 양돈자조금 대의원, 협회 회원 및 조합원 등 양돈인과 도축장 관계자, 공무원 등이다.

제주도협회에 이어 경남도협의회가 8월 20일 산청문화예술회관, 8월 23일 강원도협의회가 강릉 미앤지웨딩홀에서 양돈자조금 대회를 열었으며, 이어 경북도 8월 27일, 전남도 8월 29일, 전북도 8월 30일, 충북도 9월 3일, 충남도 9월 5일, 경기도 9월 7일에 각각 양돈자조금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돈**